

온주 밀감 시설 노지보다 '30배' 더 필요

제주연구원, 주요 재배작물 농업용수 이용특성 연구 "지하수 추가 개발 어려워...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온주밀감의 시설(가온) 재배를 위해선 노지 재배 대비 30배가 넘는 농업용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내 시설하우스 밀감 재배 면적 확대에 따라 향후 농업용수 필요수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제주지역 주요 재배작물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특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하우스 면적은 매년 6%씩 증가하고 있고 농업용수 수요량도 증가 추세다. 하지만 도내 개발된 지하수의 취수허

가량은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의 91.5% 수준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도내 농업용수의 96%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진은 연구 대상인 53개 농가 중 단일작물을 연속 재배한 15개 농가를 선정해 6가지 주요 작물 별 농업용수 이용 특성을 연구했다.

작물 별 재배에 필요한 연평균 농업용수 이용량 분석 결과 >천혜향 연평균 2635.4㎥/10a(=1000㎥) >레드향 1695.9㎥/10a >온주밀감 가온 1210.1㎥/10a >한라봉 745.7㎥/10a >마늘 연평균 291.3㎥/10a

>온주밀감 노지 37.5㎥/10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주밀감과 만감류의 주 재배지인 제주 남부지역 대상 농업용수 필요수량 산정 결과, 만감류와 가온 재배에 필요한 농업용수 지하수가 노지 재배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용수 필요 수량은 만감 재배의 경우 2937만7000㎥/년, 온주밀감 가온 재배 355만1000㎥/년, 온주밀감 노지 재배는 224만8000㎥/년으로 산정됐다.

특히 온주밀감 가온 재배 면적(873ha)은 노지 재배 면적(6001ha)의 4.9% 수준인 반면 농업용수 필요수량은 3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만감 재배 면적(1732ha)은 온주밀감 노지 재배 면

적의 28.8% 수준이지만, 농업용수 필요수량은 노지 대비 13배 많았다. 연구진은 현재 지하수 개발량 포화로 지하수 추가 개발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으로 증가되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에는 대규모 빗물저류시설 설치 등 최대한 빗물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농가의 지하수 취수 스위치에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팜의 일원화로 환경센서를 설치해 농가에서의 과잉양수 및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비자림로 공사 구간서 '으름난초' 발견 비자림로 시민모임 '식물상 조사 보고서' 발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21일 '비자림로(대천~송당) 공사 주변 지역에 대한 식물상 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사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비자림로 도로 확장은 양치식물 및 특산식물과 희귀식물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천미천 주변의 도로공사는 하천유역의 물리적 변화로 생태계 교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한국양치식물연구회와 함께 비자림로 공사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양방향 총길이 2.94km, 너비 150m 이내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회에 걸쳐 식물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면적은 88만 200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가 발견됐으며, '한라산 총서 IX 한라산의 식물상(2020)'을 인용해 으름난초는 제주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 속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어린이집 개선 우선 지원 서귀포시, 27일까지 공모

서귀포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환경개선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개모집은 지역 내 어린이집 122곳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이뤄지며, 예산 지원 규모는 1억 4000만원이다

시는 어린이집 1곳당 중·개축비 3000만원, 개보수비 2000만원, 장비구입비 500만원, 복합사업(개보수 및 장비구입비)은 2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 마감 후 2월 중 신청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방문과 함께 사업 내용의 적정성, 법령과 예산의 목적성 위배 여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자체 심사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예산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선정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서귀포시 여성가족과(760-2593)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송악산 정상에서... 22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정상에서 아름다운 제주풍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멀리 산 정상상을 비롯한 제주도의 모습이 병풍처럼 이어져 있다.

민원 야기 지적불부합지 해소되나 제주시, 올해 광평마을·함덕·상도리 대상 추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적불부합지 해소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올해 노형동 광평마을과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 및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구지정 추진 면적은 3개지구 총 1047필지·72만2281㎡에 이른다.

해당 사업지구에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이다. 이로 인해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등이 불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이어 일필지 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1개 지구를 지정해 16개 지구(4672필지·611만1000㎡)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5개 지구(1589필지·88만4000㎡)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윤형기자

"우도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 필요" 제주도 설문 결과 도민 10명 중 6명 응답

우도면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에 대해 10명 중 6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은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우도면 내 반입, 신규등록을 억제하는 조치다. 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 최초 운영됐고 이어 1.2차 연장으로 올해 시행 5년 차를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해온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자동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9일~12월 31일까지 이뤄졌으며, 우도주민 및 도내·외 방문객 569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

가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대어이륜자동차를 관광지 우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외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는 우도 방문 만족도는 응답자의 76.7%가 만족, 불만족 5.3%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환경은 30.1%가 교통이 혼잡하다고 응답했으며, 주 원인으로 78%가 대어이륜자동차 운행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도주민 및 상업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신규 등록 제한에 대한 견해는 긍정 39.6%, 부정 30.7%, 보통 29.7% 순으로 나타났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강력 추진, 현 체제 유지하면서 제도연장이 각 26.7%, 문제점 대책 마련 전제 연장 17.9%, 자동차 운행제한 이전 자동차총량제 제도 복귀 16.8% 순으로 조사됐다. 고대모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을·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굴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푸른지게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굴(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야까리 3년생
- 오히라베니와세(궁천변이지)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